

목어

나날이 새로운 날

'새롭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날이 새롭게 바뀌어 가는 새로운 날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날이 바뀌어 가는 새로운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오고 가는 시간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다른 의미의 '새로움'이 있다. 그러한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을 조개어 단락을 지우고, 그 새로운 단락의 시작에나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것은 아닐까?



어렵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을 맞는 새내기들을 맞아 활기가 가득하다. 그들의 설렘은 오랜 동안 대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져 온다. 대학 시절의 내 모습이 새삼 생각나고, 그 때 지녔던 꿈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대체적으로 지금의 모습에 결핍되면서, 자신의 불충실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쪽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설렘을 느끼고 전해받고 싶다.

시간이란 것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40대, 아니 30대를 넘기면 대개 느끼는 일이다. '한 생각이 한량없는 겁이요, 한량없는 겁이 바로 한 생각이다'는 법성계의 가르침이 실감나지는 않지만, 30 고개를 넘고서는 세월이 갑자기 빨리 흐르기 시작하고, 40 고개를 넘으면 완전히 비탈길을 달리는 바퀴 같다는 느낌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리라. 나날이 서로워지고,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시간은 그 새로워지는 내용만큼 천천히 흐른다. 그러다가 어떤 생활의 틀에 안주하고 나날을 반복적인 일상으로 채워가는 즈음이 되면 시간이 빠르게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날이 좋은 날, 나날이 새로운 날'이라는 경구를 되뇌이게 되는 것도, 이 일상의 타성을 벗어나 하루하루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다짐이리라. '이' '네가 벌써?' 하는 물음으로 그들의 젊음을 맞지 않을 만큼, 나도 나날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새내기들을 맞는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특별기고

근대화 주역 '빈손으로 가다'

정주영 회장 타계

3월 21일 타계한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씨를 '신화를 일군 현대사의 거목'이라 평가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한 채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을 오늘날 매출 100조원대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에 그가 남긴 숭한 일화는 그 자체가 신화가 아닐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 댐 건설과 함께 중흥을 비롯한 해외건설 붐을 일으키며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이 땅에 짓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 한국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만든 고(故) 정주영씨는 "현대를 통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며 높은 자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앞서 이끌면서 그 야망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업적을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경제감각과 놀

라운 추진력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항토색 짙은 소박함과 소탈함, 성실하고 겸손한 그의 인간성이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주영씨는 만년에 들어 한가할 때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비디오텍 및 번식이나 볼 만큼 이땅의 짙은 향토문화를 사랑했다.

소매 물고 방북

95년 12월 옛 중앙극장 자리에 들어선 문화홀에서 중앙극장 개관 60주년 기념공연으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공연될 때는 관객과 더불어 울면서 주제가 '홍도야 울지마라'를 함께 합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눈물조차 웅덩이 없는 삭막한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과 함께 노래하며 울 수 있었던 정회장은 자신의 말처럼 '자본가가 아니라 부유한 노동자'로 살아왔을지

모른다.

'세계사를 변혁시킨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며 친분을 가졌던 옛 연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도 그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다. 소련 붕괴 후 고르바초프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정회장의 환영만찬에 참석했는데 '겉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지 않는다'는 그도 정회장의 흥에 겨운 권유에 러시아 민요를 몇 곡씩이나 불렀다고 한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소박함, 동시대인과 시대의 정서를 공유할 줄 아는 이같은 뛰어난 인화력 또한 고인의 거인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98년 5백 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향하던 고인의 모습이다.

'어릴 적 가난이 싫어 소 판 돈을 갖고 무작정 상경했다. 그 후 나는 묵묵히 일 잘하고 참을성있는 소를 성실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제 그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몰이 방북, 98년 10월 27일.

한 마리가 5백 마리의 소가 되어 그 빛을 감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산천을 찾아간다."

신계사 복원 관심

통일을 위한 복을 향한 남쪽의 첫걸음도 정회장으로 하여 이렇게 열렸으며 금강산 개발 또한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에는 금강산의 폐사찰 신계사를 복원시키겠다는 꿈도 펼쳐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의 타계에 앞서 재벌이 이끌어 온 한국경제의

파탄, 그 가부장적 경영이나 근년의 무모한 북한 투자 등이 불러 온 '현대'의 유흥 위기 등이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을인데, 그래도 우리는 '기적의 밑천은 부지런함이며 성실과 신용'이라는 고 정주영씨의 신념과 그의 행동철학에서 배울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동안 현대의 위기였는지 그가 남긴 유산도 예상외로 적다 한다. 이미 '돈만으로는 크게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을 스스로 밝힌바 있거니와 여차피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고인 역시 알고 떠났으리라.

김정자 <연론인>

남북불교 통일토론회 '불투명'

북, '실무대표단' 평양행 거부

지원물량 늘리라는 뜻 담겨

5월 말 또는 6월 초 열릴 예정이던 남북불교 통일토론회가 북측의 태도 변화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측의 태도 변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은 19일 오전 박태화 위원장 명의로 종단협의회 앞으로 팩스를 보내 통일토론회 실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단의 3월 평양방문을 사실상 거부했다. 조불련은 대신 이 달 27-29일 베이징에서 열 남북종교인회의 때 만나 논의하자고 밝혔다. 남북간에 실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일토론회의 상반기 개최는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베이징 남북종교인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는 회의 개최를 당새 앞둔 2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일시와 장소를 3월 말 또는 4월 초, 금강산으로 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KCRP는 장소만 변경하자는 입장이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한 스님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남쪽에서 굳이 매달리다시피 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며, "퍼주기식" 남북불교교류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통일토론회 개최에 적극적이었던 조불련이 돌연 소

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나타나는 대북강경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종단협의회 대북지원물량이 조불련의 예상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북한전문가는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은 대미·남북 관계에 대해 장교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예정했던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소강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협의회 대북지원물량에 대해 조불련은 지난 19일 종단협의회에 보낸 팩스를 통해 "방문 명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지원정사(진각종 복지재단 사무국장)는 "남북 관계에서 현 단계는 교류를 위한 지원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응보다 북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개별 종교의 별도 접촉보다는 지난 해 추진했던 남북종교대표의 방북을 통한 남북종교인회의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 직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단협의회와 조불련은 지난해 11월 북경에서 만나 5월 말 또는 6월 초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불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금강산이나 베이징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토론회에 앞서 3월 말 남북 실무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실무준비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종책 모임간 조율 실패

조계종 총회 교육-포교원장 선출 못만 까닭

결국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20-23일 열린 조계종 150회 중앙총회의 안건 중 총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누구로 선출하느냐는 것이었다.

20일 오전 개최한 중앙총회의장 지하는 당초 3, 4번 안건으로 돼있던 교육원장 포교원장 선출의 건을 13, 14번으로 미루 두 원장 선출을 둘러싼 종책연구모임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예정했던 회기 5일을 하루 앞당겨 폐회하는 바람에 두 원장 선출 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이 추천한 스님에 대해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3일까지 교육원장 포교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투표를 통해 두 원장을 뽑을 경우 종회 내 종책모임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부 종회원들 사이에서는 6월계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뽑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포교원장은 지난 1월 당시 원장 정연스님의 사퇴 이후 공석중이다. 교육원장은 일면 스님이 불선사 주지로 취임하며 지난 13일 사표를 냈다.

이번 총회에서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선

출하지 못한 것은 총회 내 종책연구모임 간에 추천 내정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총무원의 대표의 자리를 비워둬 행정 공백을 가져올 것이 뻔한데도, 소속 모임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회를 파행으로 몰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원의 한 소임자 스님은 "교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는 동시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원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님들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문성 부재"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두 원장을 선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책임을 총회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쪽의 스님들은 "애초에 그쪽에서 추천하지 않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은 중앙총무원의 대표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완강한 입장과는 달리, '의견조율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총회를 열어놓고서도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성운 기자

중립학교 관리위원회 주치의 최근 세미나에 대한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의 입장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학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세미나가 개최되기 이전에 언론에 유포된 주제 발표의 요지와 어제(2001년 3월 20일) 발표된 주제의 전문을 보면서, 우리는 법구경의 말씀을 먼저 실감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헐뜯는다. 말이 많아도 비방 받고, 말이 없어도 비방 받고, 말이 적어도 비방 받는다. 세상에겐 비방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비방만 받는 사람도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었고, 없고 또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방도 속절없으니, 모두가 제 이름과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누구라도 비방자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들만을 들추어내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세미나 주최측의 비난과 폄하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증되지 않은 자료와 발표자의 학문적 취향을 준거로 삼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작성한 주제 발표문을 주요 언론에 미리 유포함으로써, 우리의 인격 훼손에 그치지 않고 중립 학교인 동국대학교는 물론이고 불교계 전체의 위상이 실추된 결과에 직면한 우리는, 바미안 석굴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는 종단 차원의 실질적인 후원과 원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적 변화만을 촉구하는 교계 언론의 따가운 질책을 모두 떠안아 감내하면서, 그것에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지금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우리에게 쏟아진 요구와 기대는, 상아탑에 안주하지 말고 전법의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과 상아탑에 파묻혀 오로지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불교학을 더욱 계발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인으로서의 우리는 전자에 충실해야 하고, 학자로서의 우리는 후자에 충실해야 하므로,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그 같은 요구와 기대는 우리를 항상 곤혹스럽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극히 열악한 불교계의 교육과 연구의 환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는 연구 수준에는 미흡할지언정 "학자들 게을러 연구 저조"(동아일보, 3월 16일자)라고 매도당할 만큼 연구에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국대학교가 평가 기준을 갈수록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수 업적 평가는 불교대학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 교내의 다른 대학 교수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립 대학만도 70여 개 이상이 되고 불교 학자만 3,000여 명에 이르는 일본 불교계의 현실, 20명 안팎의 우리가 연구 이외의 요구와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는 한국 불교계의 특수한 현실을 세미나 주최측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과 입장이 다른 외국 대학 또는 국내의 일반 대학을 준거로 삼아, 우리에게 각성과 의욕을 고취하기보다는 모멸감과 허탈감을 강요하는 그 같은 비판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멸시가 아니라, 결국 불교계 전체에 미칠 멸시입니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대동소이하게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교육 관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는 선의의 발로일 것이라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교도라도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항변을 자제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학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불교대학의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세미나에서 표방한 교언을 참고로 하여 불교학의 발전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주제 발표에 대한 논평으로써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발표자들도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시인하는 보도로써,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불교계의 위상을 크게 훼손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학자의 연구 업적은 짧은 기간에 양산될 수는 없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이면서 검증과 거처서야 진정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불교대학의 향방과 우리의 결실을 좀더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3월 21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일동